

“장애인도 식당·마트 맘껏 드나들고 싶어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자치구 장애 인식·환경 개선

동구 ‘무장애 위원회’ 출범

상가 28곳 ‘배려의 문턱’ 설치

남구 교육·공감 나눔행사

“우리도 맛 집 요리를 맛보고 미용실을 가고 싶어요.”

16일 광주시 동구 산수문화광장에 모인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출입구 문턱이나 계단 때문에 음식점이나 마트를 방문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비장애인들은 5cm 높이 문턱이 대수롭지 않겠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상점 방문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우리도 식당과 마트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날(매년 4월20일)을 앞두고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불편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 동구·남구 등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환경·인식 개선 사업과 행사가 최근 1~2년 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산수문화마당 광장에서는 ‘무장애 동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식 출범했다. 발대식은 지역 중간보호센터의 발달 장애인 50여명과 지체장애인 200여명,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동구의회

의원들,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추진위 결성은 남구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이 지난 2016년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계기가 됐다. 이 장애인은 “평소 이용하던 미장원 주인이 휠체어를 쉽게 통행시키기 위해 출입구 계단 한 쪽을 시멘트로 메워줘서 고맙다”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본 동구의회 의원들과 공직자들은 공공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부터 ‘장애감염운동’이 활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동구는 지난 2016~2017년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 동구지역 상가 28곳에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하고 ‘배려의 문턱’이라고 써진 현판을 부착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진건 광주장애인정보화 협회장을 대표로 무장애동구 추진위 준비모임이 꾸려졌고, 이날 정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무장애 동구 만들기’에 나서게 됐다.

추진위는 앞으로 동구지역 상점가를 조사해 출입구 경사로나 자동문 설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 장애공감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장애 친화건물·마을 조성,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출범을 주도한 전영원 동구의회장은 “장애공감 무장애 동구를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준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공감 나눔행사가 열렸다.

이날 봉선초등학교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체험 교육’이 진행돼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봉선동 유안 근린공원에서 ‘제3회 남구 장애공감 나눔행사’가 펼쳐진다.

복지단체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문화제, 이동 라디오 체험, 도전 골든벨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행사장 한편에는 세월호 피해자를 추모하는 4·16 분향소가 운영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16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수문화마당에서 열린 ‘무장애 동구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치며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동구 만들기를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9 달뜨기 16:37
해질 19:06 달지기 04:47

출근길 우산챙기세요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운뒤 갬	12/21	보성	비운뒤 갬	9/18
목포	비운뒤 갬	11/18	순천	비운뒤 갬	11/20
여수	비운뒤 갬	12/17	영광	흐린뒤 갬	9/20
나주	비운뒤 갬	9/21	진도	비운뒤 갬	9/18
완도	비운뒤 갬	11/19	전주	흐린뒤 갬	10/22
구례	비운뒤 갬	9/21	군산	흐린뒤 갬	10/20
강진	비운뒤 갬	10/20	남원	흐린뒤 갬	9/21
해남	비운뒤 갬	9/19	흑산도	흐린뒤 갬	10/16
장성	흐린뒤 갬	8/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1.5	남동~남	1.0~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1.0~2.0	남~남서	1.0~2.0

◇ 생활지수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38 18:11
여수	01:18 13:47	07:42 20:06

◇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	☀	☀	☁	☁	☀	☀
11/23	11/22	11/23	12/22	13/21	11/22	11/23

코레일, 강원도 화재 자원봉사자 열차 운임 할인

코레일 광주본부는 “강원지역(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자의 편도 열차운임을 무료로 하고, 일반인의 강릉선 KTX 운임을 30%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이 난 강원지역에 피해 복구를 도우러 가는 자원봉사자는 갈때만 요금을 내고, 돌아오는 모든 열차편(특실 제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피해지역 현장 센터 등에서 발급 받은 봉사증명서를 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역 창구에

자원봉사 증명서를 제시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강원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강릉선 KTX 전 구간 운임을 30% 할인한다. 5월부터 출시하는 각종 관광열차 할인상품에도 별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기념재단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5·18기념재단이 ‘제18회 5·18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참가자를 오는 6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토론대회 주제는 ‘한반도 통일, 평화의 약속인가?’다.

예선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은 저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진천규),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어깨동무 평화교육 이야기’(이기범 외 5인), ‘개성공단 사람들’(김진향)과 JTBC 특집프로그램 ‘두 도시 이야기-서울·평양 2부작’, KBS ‘오늘 미래를 만나다: 설민석의 통일 이야기’를 보고 논제를 정한 뒤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진천규),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어깨동무 평화교육 이야기’(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를 보고 논제를 정한 뒤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예선문을 작성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 제출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접착제 안쓴 페트병 재활용 ‘최우수’ 등급

재활용 용이성 따른 등급제 시행

페트병 등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이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7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사용 등 과정에서 제품 품질 보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 재료나 용기를 일컫는다. 9개 포장재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철 캔, 알루미늄 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

류 등이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바꿨다. 기존 1등급은 ‘최우수’, ‘우수’로 세분화하고 ‘보통’을 신설했다. 2~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했다.

구체적으로는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등급 기준에 반영했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지역 학교 화장실 양변기 설치율 격차

237곳 100%, 44곳 30% 이하

이혜제 전남도의원 개선 촉구

전남도내 학교마다 화장실 양변기 설치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혜제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남 846개 학교에 설치된 변기는 모두 3만2570개로 이 가운데 2만4235개(74.4%)만 양변기(洋便器)로 파악됐다. 양변기 설치비율은 각급 학교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은 592개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1만5953개 중 1만1521개(72.2%)가 양변기였다.

중학교 양변기 설치율은 69.8%, 고등학교는 81.7%였다.

237개 학교는 100% 양변기였으나 164

개 학교는 양변기 설치율이 50% 이하, 44개 학교는 30% 이하로 조사됐다.

조그려 앉아서 일을 보는 화변기(和便器)가 아직 일선 학교에 많아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양변기를 사용하던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위생상 이유로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는데, 신설했거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 학교에는 100% 양변기를 설치해 보완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대·소 변기 설치비율은 정하면서도 양변기와 화변기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학생 건강이나 학업 집중력 지원을 위해서는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투자전문가 송병현 대표의 특별세미나

부자되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전문가 송병현 대표의 방송일정안내




김태형 전문가


허정훈 전문가


이동규 전문가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매주 월요일 저녁 7:00 ~ 8:00

tomato

“MONEY MEN”

매주 화, 금요일 저녁 6:00 ~ 7:00

광주 (서구)

- 일시: 4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 주소: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차: 유료 (시간당 1,400원)

경기 (부천)

- 일시: 4월 22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채림웨딩홀 4층 라시메데장방 보르도홀 (지하철 1호선 부천역 3번출구 앞)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3-1
- 주차: 2시간 무료 그 외 고객유료

대구 (달서)

- 일시: 4월 24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더킹덤뷔페 15층 비앙카홀 (죽전역 1번 출구 맞은편)
- 주소: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3-6번지 골든뷰메디티타워 15층
- 주차: 2시간 30분 무료 그 외 개인부담

참석정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주) 이루원 개발 문의 : 02) 332-6799